

忠州 忠烈祠의 所藏 遺物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Relics Housed in Chungyeolsa in Chungju

朴文烈 (Park, Moon-Year)*

◁ 목 차 ▷

- | | |
|--------------------|--------------------|
| 1. 緒言 | 3.1 所藏 遺物의 性格 |
| 2. 忠愍公 林慶業과 忠州 忠烈祠 | 3.2 所藏 遺物의 文化財의 價値 |
| 2.1 忠愍公 林慶業 將軍 | 4. 結 論 |
| 2.2 忠州 忠烈祠 | <참고문헌> |
| 3. 忠州 忠烈祠 所藏 遺物 | |

< 초 록 >

본고는 忠州 忠烈祠에 소장된 遺物의 性格과 文化財의 價値에 관하여 考究한 것으로 그 結論은 다음과 같다.

(1) 忠愍公 林慶業(1594-1646) 將軍은 忠州의 楓洞에서 출생한 철저한 親明背淸의 名將이었으며, 忠烈祠는 忠愍公 林慶業 將軍을 祭享하는 祠宇로 1978년 重建할 때에 紀念館도 건립되었다.

(2) 忠烈祠에 所藏된 遺物은 林慶業 將軍과 直接·間接의 關係로 關連된 52종 54점이며 鐵物類 1종 1점, 石物類 3종 3점, 木物類 7종 7점, 紙物類 41종 43점으로 構成되어 있다.

(3) 忠烈祠에 소장된 유물 중 <御製達川忠烈祠碑>, <秋蓮刀>, <忠愍公林慶業肖像> 등 3件은 忠淸北道 有形文化財나 文化財資料로 지정되어 있다.

(4) 忠烈祠에 소장된 유물 중 <林慶業夫人完山李氏貞烈碑>, <忠州忠烈祠懸板>, <「林將軍傳」板木>, <忠州忠烈祠講堂懸板>, <林慶業 關聯 古文書類 一括>, <林慶業 關聯 典籍類 一括> 등 6件의 유물은 林慶業 將軍의 崇高한 愛國忠節의 精神을 엿볼 수 있으므로 地方文化財로 指定·管理하는 것이 合當할 듯하다.

要語: 忠州, 忠烈祠, 忠愍公, 林慶業, 遺物

* 淸州大學校 人文大學 人文學部 文獻情報學專攻 教授(parkmoon@cju.ac.kr)

접수일: 2010년 12월 5일 최초심사일: 2010년 12월 20일 심사완료일: 2010년 12월 27일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features and cultural values of the relics housed in Chungyeolsa in Chungju.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A great general Im Gyeongop, Chungmingong, was born in Pung-dong, Chungju. He was a person close to Ming Dynasty, but against Qing Dynasty. Chungyeolsa was a shrine to commemorate him, and its memorial hall was also built in 1978 when Chungryeolsa was reconstructed.

(2) The relics that Chungyeolsa contains are related, directly and indirectly, with the general Im Gyeongop.. They are all 54 pieces of 52 kinds, including one piece of one kind of ironwork, 3 pieces of 3 kinds of stoneworks, 7 pieces of 7 kinds of woodworks, and 43 pieces of 41 kinds of paperworks.

(3) The three relics, <Eojedalcheon-Chungyeolsa-bi>, <Churyeon-do> and <The portrait of Chungmingong Im Gyeongop> are designated as the tangible cultural properties or cultural materials of Chungcheongbuk-do.

(4) Since other relics like <The virtuous memorial stone of Mrs. Im Gyeongop, Wansan Lee>, <The woodblocks of *Imjanggunjeon*>, <The hall signboard of Chungju Chungyeolsa>, <A set of old documental materials about Im Gyeongop> and <A set of book collections about Im Gyeongop> also represent the general Im's patriotism and loyalty, it is proper to designate and manage them as local cultural properties.

Key words: Chungju, Chungyeolsa, Chungmingong, Im Gyeongop, Relics

1. 緒 言

忠州 忠烈祠는 조선 仁祖朝에 忠義로 나라를 위해 獻身한 忠愍公 林慶業 (1594-1646) 將軍을 祭享하는 祠宇이다.

忠烈祠는 忠節의 高장인 忠州市의 대표적인 歷史教育의 現場으로서 將軍의 崇高한 愛國忠節의 精神을 窺見할 수 있는 道場이다. 忠烈祠의 面積은 29,564㎡이며 건물은 祠堂(66㎡), 講堂(66㎡), 碑閣(6㎡), 振武門(19㎡), 竭誠門(26㎡), 遺物展示館(132㎡), 事務室 외 4棟(157㎡) 등 道場 11棟 472㎡이다.

忠烈祠에는 將軍과 관련된 적지 않은 遺物이 所藏되어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한 遺物을 對象으로 한 斷片的인 考究는 적지 않았으나, 所藏遺物의 總括的인 論稿는 최근에 이르러 나타나고 있다.¹⁾

本稿는 忠州 忠烈祠에 所藏된 忠愍公 林慶業 將軍과 관련된 각종 遺物들의 性格과 價値를 考究함으로써 地方文化財 指定을 위한 基礎資料로는 물론 忠愍公 林慶業 將軍의 研究에 一助하고자 한다.

2. 忠愍公 林慶業과 忠州 忠烈祠

2.1 忠愍公 林慶業 將軍

忠愍公 林慶業은 朝鮮時代 中期의 武臣이며 名將이다. 字는 英伯이고 號는 孤松이며, 本貫은 平澤이다. 1594(선조 27)년 11월 2(병자)일에 忠州의 達川 楓洞에서 출생하였다.²⁾ 어려서부터 전쟁놀이를 즐겼으며 大將이 되어 지휘하기

1) 忠州市와 忠淸大學博物館의 努力으로 最近에 이르러 綜合的인 研究報告書가 發刊되었다(忠淸大學博物館·忠州市 編, 忠州 忠烈祠 林慶業 將軍 遺品 學術調查 報告書, 學術研究叢書 37, 淸州: 忠淸大學博物館, 2010. 參看).

2)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金屬活字本. [漢城]: [芸閣], 正祖 15(1791). 卷2, 年譜, 萬曆 22(宣祖 27)年 11月 2(丙子)日條. “子時 公生于忠州達川村.”

를 좋아하였다.³⁾ 9세이던 1602(선조 35)년부터 兵書와 武藝에 힘썼으며,⁴⁾ 22세의 1615(광해군 7)년에 鎭安大君(1354-1393)의 7세손 李潛의 딸과 결혼했다.⁵⁾

1618(광해군 10)년 25세에 武科에 급제하여 咸境道 甲山으로 防秋로 나갔다 가⁶⁾ 1620(광해군 12)년에 三水의 小農堡權官이 되었다.⁷⁾ 1624(광해군 14)년에 知中樞府使로 있다가 1624(인조 2)년에 李适(1587-1624)의 亂 때에 鞍峴에서 공을 세워 振武原從功臣 1등에 올랐다. 이듬해(1625) 行兪知中樞府事兼羽林衛將을 거쳐 防踏僉使가 되고⁸⁾ 1626(인조 4)년에 樂安郡守로 나갔다.⁹⁾ 이듬해(1627) 丁卯胡亂이 일어나자 左營將으로 出陳하였으나 和議가 성립되어 되돌아 왔으며¹⁰⁾ 그 이듬해(1628)에는 體擦府別將이 되었다.¹¹⁾ 1629(인조 7)년에 龍驤衛副護軍이 되고¹²⁾ 이듬해(1630)에 平安監司의 中軍이 되었다.¹³⁾ 1631(인조 9)년에 劍山山城防禦使가 되어 퇴락한 龍骨·雲暗·凌漢山城 등을 수축하고¹⁴⁾

- 3)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2, 年譜, 萬曆 27(宣祖 32)年條.
“與群兒遊戲必 累石爲營 揭草爲旗 作戰陳狀 而身自爲帥 群兒皆受其約束 不敢違焉 見者異之.”
- 4)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2, 年譜, 萬曆 41(光海君 5)年條.
“家甚貧 殆不能具朝夕 而若逢霽弓矢者 輒解衣而易之 人皆笑以爲迂.”
- 5)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2, 年譜, 萬曆 43(光海君 7)年條.
“聘全州李氏 鎭安大君七代孫潛之女也.”
- 6)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2, 年譜, 萬曆 46(光海君 10)年條.
“中武科 與弟嗣業聯榜 共赴甲山防秋.”
- 7)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2, 年譜, 萬曆 48(光海君 12)年條.
“調小農堡權管 未幾超陞折衝 以增備軍額 … 乃短劍也 自製一律銘其劍(銘見第一卷).”
- 8)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2, 年譜, 天啓 5(仁祖 3)年 正月 9日條.
“拜嘉善大夫行兪知中樞府事兼羽林衛將已 而除防踏僉使.”
- 9)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2, 年譜, 天啓 6(仁祖 4)年條.
“除樂安郡守 莅任數月 治積大著.”
- 10)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2, 年譜, 天啓 7(仁祖 5)年條.
“領軍至江華而還.”
- 11)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2, 年譜, 崇禎 元(仁祖 6)年條.
“被劾罷歸 爲體府別將.”
- 12)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2, 年譜, 崇禎 2(仁祖 7)年 5月 17日條.
“授龍驤衛副護軍.”
- 13)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2, 年譜, 崇禎 3(仁祖 8)年條.
“爲平壤中軍 以平安監司閔公聖徽啓請也.”

定州牧使가 되었으나¹⁵⁾ 이듬해(1632) 父親喪을 당해 辭職하고 歸鄉하였다.¹⁶⁾

이 무렵 朝廷이 淸江江 以北을 포기하고 首都圈防衛에 전념하게 되면서 淸北 人의 反對運動이 일어나자, 장군은 뒤에서 조종하였다는 구실로 탄핵을 받아 한때 拘禁되기도 하였다.¹⁷⁾ 1633(인조 11)년에 起復하여 淸北防禦使에 安邊府使를 겸하였으며¹⁸⁾ 이때 白馬山城·義州城을 수축하고 明朝의 叛將 孔有德을 토벌하여 황제로부터 總兵官의 벼슬과 金花 등의 賞을 받았다. 이듬해(1634)에는 副護軍에¹⁹⁾ 義州府尹兼淸北防禦使가 되고²⁰⁾ 義州鎭兵馬僉節制使까지 겸하게 되었다.²¹⁾ 그러나 白馬山城을 방어하기에는 人的·物的 어려움이 많아 朝廷으로부터 資金을 받아 중국 商人과의 貿易을 통하여 財物을 축적하는 동시에 流民을 모아 屯田을 개설하여 편히 살도록 하였다.

이러한 공으로 1635(인조 13)년에 嘉義大夫에 올랐으나²²⁾ 貿易去來로 지나친 이익을 추구하였다는 이유로 劾職되었다가²³⁾ 이듬해(1636) 義州府尹에 복직²⁴⁾

- 14)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2, 年譜, 崇禎 4(仁祖 9)年條.
“除劔山山城防禦使 監築諸城 下諭錫馬.”
- 15)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2, 年譜, 崇禎 4(仁祖 9)年 閏11月 27日條.
“拜定州牧使.”
- 16)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2, 年譜, 崇禎 5(仁祖 10)年 2月 8日條.
“丁領中樞公憂 奔喪歸達川.”
- 17)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2, 年譜, 崇禎 5(仁祖 10)年 2月條.
“拿推卽釋.”
- 1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仁祖 11年 1月 30(壬戌)日條.
“以林慶業爲淸北防禦使 時 備局以爲 兵使入守安州 則淸北列城 無號令之人 林慶業久在淸北 聲績表著 若差防禦使 常時檢飭山城 臨亂領率江邊精銳 以爲安州聲援 合於機宜 上從之.”
- 19)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2, 年譜, 崇禎 7(仁祖 12)年 5月 8日條.
“授副護軍.”
- 20)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2, 年譜, 崇禎 7(仁祖 12)年 5月 29日條.
“拜義州府尹兼淸北防禦使 … 答曰 … 乃給體府銀千兩及綿段百匹.”
- 21)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2, 年譜, 崇禎 7(仁祖 12)年 6月 6日條.
“加義州鎭兵馬僉節制使.”
- 22)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2, 年譜, 崇禎 8(仁祖 13)年 4月 21日條.
“陞嘉義.”
- 23)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2, 年譜, 崇禎 8(仁祖 13)年條.
“坐微事削官.”
- 24)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2, 年譜, 崇禎 9(仁祖 14)年 4月條.

되어 鴨綠江邊의 防禦態勢를 강화하였다. 동년(1636) 12월에 丙子胡亂이 일어나자 仁祖는 南漢山城으로 피하게 되었으며 결국 이듬해(1637) 정월에 主和論者인 崔鳴吉 등의 주장으로 三田渡에서 굴욕적인 和議가 성립되었다. 이에 淸朝가 椴島에 주둔하는 明軍을 공격하고자 朝鮮에 병력을 요청하게 되면서 장군은 水軍將에 발탁되었으나²⁵⁾ 철저한 親明背淸派였던 장군은 사전에 이 사실을 明軍에 알려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였다.

1638(인조 16)년에 平安兵使·水軍節制使兼安州牧使가 되고²⁶⁾²⁷⁾ 1640(인조 18)년에는 淸朝의 요청으로 舟師上將이 되어²⁸⁾ 明의 錦州를 공격하였으나, 이때에도 사전에 明軍에게 알려 피해를 줄이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져 1643(인조 21)년에 체포되어 淸朝로 압송되던 중 金郊驛에서 탈출하여 檜巖寺로 들어가 승려로 가장한 뒤²⁹⁾ 明으로 망명하였다. 이에 明朝에서는 장군을 副總兵에 임명하여³⁰⁾ 淸朝의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장군은 淸朝의 세력에 밀려 1645(인조 23)년 1월에 淸朝의 포로가 되었다.³¹⁾

이 무렵 조선에서 沈器遠(1587-1644)의 謀叛事件이 일어나자 장군도 連累되어³²⁾ 1646(인조 24)년에 淸朝에서 朝鮮으로 송환되어 親鞫을 받던 중 金自點

“復拜義州府尹.”

25)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2, 年譜, 崇禎 10(仁祖 15)年 正月條.
“爲水軍將.”

26)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2, 年譜, 崇禎 11(仁祖 16)年 9月條.
“拜平安兵使兼安州牧使下諭錫馬.”

27)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仁祖 16年 9月 19(戊寅)日條.
“以 … 林慶業爲平安兵使.”

28)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2, 年譜, 崇禎 13(仁祖 18)年 4月 13日條.
“爲舟師上將.”

29)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3, 年譜, 崇禎 16(仁祖 21)年 3月條.
“至檜巖寺.”

30)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3, 年譜, 崇禎 17(仁祖 22)年 7月 4日條.
“黃宗齋夜遁 公與其中軍馬弘周 共治兵事.”

31)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3, 年譜, 崇禎 18(仁祖 23)年 正月條.
“馬弘周 執公降虜 虜送公北京 繫獄八朔 公不屈.”

32)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仁祖 22年 3月 21(己酉)日條.
“罪人沈器遠供稱 … 林慶業入瀋之時 何可逆料其中路逃避 而造給僧衣乎 臣遭逢際遇十

(1588-1651)의 命을 받은 刑吏에 의해 杖殺되었다.³³⁾³⁴⁾ 장군이 金郊驛에서 탈출한 후 장군의 가족은 清朝로 압송되었으며, 夫人은 그곳에서 자결하였다.³⁵⁾

1697(숙종 23)년에 特命으로 復官되고³⁶⁾³⁷⁾ ‘忠愍’이라 賜諡되었으며³⁸⁾³⁹⁾ 부인 李氏도 旌閭되었다.⁴⁰⁾⁴¹⁾ 1646(인조 24)년에 억울하게 被殺된 장군은 고향인 忠州市 楓洞 山 45에 埋葬되었으며, 谿未面 洗星里에는 1778(정조 12)년에 세운

-
- 數年來 少無絲毫補益 而濫蒙寵擢 唯以一死自期 不幸爲姦人所誣 自責自悼而已 ….”
- 33)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仁祖 24年 6月 17(壬辰)日條.
 “上御時敏堂 親鞫林慶業 先是 器遠之獄 黃灑等以爲 器遠言 慶業亡命之時 齋給僧人服飾 仍使乘船 入往中原 請兵天朝 以爲藉勢之地 其謀逆凶計 慶業實與知云 … 及受刑大呼曰 朝廷以天下爲己定乎 今日殺我 必有後悔矣 及死 百姓聞其死 莫不憐之 金自點曰 事大 必須以誠 今者清國出送慶業 且減缸糧 臣意以爲 國家雖多事 若因節使 以謝其恩 似涉歇後 別差使臣如何 上曰 卿言是矣 然清國亦以頻送使臣 憚於酬應 不久使行當還問其事情 而處之可也.”
- 34)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3, 年譜, 崇禎 19(仁祖 24)年 6月 20日條.
 “又親鞫 公上闕遠歿 特命承旨 諭公屍.”
- 35)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3, 年譜, 崇禎 16(仁祖 21)年 9月 26日條.
 “夫人李氏 自劉於瀋陽獄.”
- 36)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23年 12月 9(乙卯)日條.
 “林慶業之孫重蕃 上言 訟其祖冤 … 傳曰 林慶業之不爲預知兇謀之狀 業已聖祖之所洞燭 而逃入中原 一歿 事雖未成 志在尊周 當時聖祖之屢勤嗟惜 自有微意 則追聖祖之志 昭洗丹書 獎其扶義 恐無不可也 特爲復官賜祭.”
- 37)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3, 年譜, 崇禎 70(肅宗 23)年 12月條.
 “特命復官賜祭 … 是年九月二十四日 公之嗣子重蕃 上言 訴冤 乞蒙 褒贈旌閭之恩 … 傳曰 … 特爲復官賜祭.”
- 3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32年 2月 5(甲午)日條.
 “以金昌協爲大提學 賜故相洪瑞鳳諡文靖 知事林慶業諡忠愍 副提學辛應時諡文莊 參判俞榮諡文忠 ….”
- 39)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3, 年譜, 崇禎 79(肅宗 32)年條.
 “賜諡忠愍 盛衰純固 日忠 在國逢難 日愍.”
- 40)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23年 12月 19(乙丑)日條.
 “召對玉堂官 參贊官崔商翼曰 林慶業復官賜祭 聽聞感歎 其妻李氏 拘繫彼中 虜人鉤問 慶業去處 終始不言 歎曰 夫爲大明忠臣 吾當死從良人 同爲大明之鬼 遂自剗而死 其雙成節義 尤是今古所罕 似當有褒獎之典 上令該曹稟處 禮曹請加旌表 許之.”
- 41)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3, 年譜, 崇禎 70(肅宗 23)年 12月條.
 “特命李夫人閭 十九日 召對 參贊官李商翼啓曰 … 聞者所當有旌閭表獎之典 故敢達矣 … 傳曰 特爲旌閭.”

<林將軍旌閭門>이 있다.⁴²⁾

2.2 忠州 忠烈祠

忠北 忠州市 丹月洞 411-5에 所在하는 忠州 忠烈祠는 仁祖朝의 武臣 忠愍公 林慶業 장군의 影幀을 봉안하고 春秋로 祭享하는 祠堂으로 事蹟 제189호로 指定되어 維持·管理되고 있다.

忠烈祠는 1697(숙종 23)년에 創建되고 1727(영조 3)년에 賜額⁴³⁾⁴⁴⁾되었으며, 1870(고종 7)년 興宣大院君(1820-1898)의 書院撤廢令 때에도 유지된 전국 47개 書院 중 하나이다. 祠堂은 木造 기와지붕의 3칸의 맞배지붕 형태이고 講堂은 木造 팔작기와지붕에 10칸이었으나 頽落으로 인한 여러 차례의 補修 끝에 1978년에 완전히 해체하고 重建하여 紀念館까지 건립하였다. 현재 忠烈祠는 콘크리트 기둥에 정면 3칸, 측면 2칸의 형태로 앞면에 전퇴를 두고 기와로 팔작지붕을 하였으며, 정면에 걸린 ‘忠烈祠’ 현관의 글씨는 故 朴正熙(1917-1979) 대통령이 직접 쓴 것이다.

內三門인 振武門은 콘크리트 기둥에 기와맞배지붕을 한 솟을삼문이며, 外三門인 竭誠門도 콘크리트 기둥에 기와맞배지붕이다. 外三門과 內三門 사이의 왼쪽에는 정면 5칸, 측면 2칸의 목조기둥에 팔작기와지붕을 한 講堂이 있고, 오른쪽에는 <御製達川忠烈祠碑>·<完山李氏貞夫人貞烈碑>와 碑閣, 그리고 故 李殷相(1903-1982)이 쓴 ‘達川忠烈祠碑’가 있다. 外三門 밖에는 오른쪽에 ‘遺物展示館’이 있고 왼쪽에는 1978년 10월 세운 <林忠愍公遺蹟淨化紀念碑>가 있다. 遺物展示館에는 현재 將軍의 <遺像>·<教旨>·<遺筆>·<秋蓮刀>·<忠烈祠懸板> 등이 전시되어 있다.⁴⁵⁾

42) 忠州市誌編纂委員會 編, 『忠州市誌』 卷上 (忠州: 忠州市, 2001), 836-838.

43)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英祖 3年 6月 5(庚寅)日條.

“忠州幼學鄭萬根等上疏 請宣賜忠愍公林慶業祠院之額 批曰 林慶業之孤忠大義 先朝之所稱賞 舉國之所共頌 近來書院賜額之弊 予實病之 至於此院 與他有別 其令該曹 卽爲舉行 …”

44)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3, 年譜, 崇禎 100(英祖 3)年條.

“賜額忠烈祠 遣官致祭.”

3. 忠州 忠烈祠 所藏 遺物

忠烈祠에 所藏된 遺物은 그 數量이 많지는 않으나, 忠愍公 林慶業 將軍과 直接·間接으로 관련된 遺物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는 매우 높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忠烈祠에 所藏된 遺物의 일부는 <遺物展示館>에 전시되어 있으며, 일부는 別庫에 守藏되어 있다. 忠烈祠에서는 「遺物管理臺帳」을 작성하여 수시로 遺物의 保管狀態를 점검하고 있다.

忠烈祠에 所藏된 遺物은 도합 52種 54點이며, 이들 유물의 材質은 크게 鐵物類, 石物類, 木物類, 紙物類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鐵物類 1종 1점(1.9%), 石物類 3종 3점(5.6%), 木物類 7종 7점(13.0%), 紙物類 41종 43점(79.6%) 등 도합 52종 54점(100.1%)으로 구성되어 있다.

3.1 所藏 遺物의 性格

忠烈祠에 所藏된 遺物들을 材料別로 나누고 製作時代의 우선순위에 따라 각 遺物의 性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1 鐵物類

忠烈祠에 所藏된 鐵物類 遺物은 <秋蓮刀> 1種 1點이다.

■ 秋蓮劔(32) / [秋蓮刀]⁴⁶⁾⁴⁷⁾

將軍의 寶劔과 寶刀로는 ‘龍川劔’과 ‘秋蓮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5) 忠州市誌編纂委員會 編, 『忠州市誌』 卷上 (忠州: 忠州市, 2001), 582-583.

46) 遺物의 著錄은 “□ 遺物名(管理番號) / [文化財名稱]”의 形式으로 하였다.

47) 일반적으로 외날인 것을 刀, 양날인 것을 劔이라 한다. 본 遺物은 외날임에도 불구하고 <忠烈祠 遺物管理臺帳>에는 ‘秋蓮劔’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秋蓮刀’로 改稱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龍川劍’은 戰場에서 직접 사용하던 劍이었고 ‘秋蓮刀’는 平常時에 保護用으로 愛用되던 것이라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龍川劍은 韓國動亂 때 紛失되고 ‘秋蓮刀’만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크기는 세로 102.0cm 가로 6.0cm이며, 刀身은 鐵, 손잡이와 칼집은 木材, 木材를 고정시키는 裝飾은 黃銅과 銅이다. 칼 코 등은 얇은 鐵版으로 製作하고 그 위에 朱錫과 鉛의 合金으로 鍍金하였다. 刀身의 左右 側面에는 ‘時呼時呼否再來/ 一生一死都在筵/ 平生丈夫報國心/ 三尺秋蓮磨十年’의 刀銘을 비롯한 ‘林將合有時’ 등 33자의 陰刻 銘文이 있다.⁴⁸⁾ 保管函은 後代에 製作된 것으로 보인다. 刀名인 ‘秋蓮刀’는 刀身의 左右側面에 새겨진 刀銘에서 유래된 것으로 ‘秋蓮’은 다른 蓮花들이 지고 없을 때 毅然히 피어나는 것으로, 志操있는 大丈夫의 象徴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秋蓮刀>는 2009년 4월 10일에 忠北 有形文化財 제300호로 指定되어 維持·管理되고 있다.

3.1.2 石物類

忠烈祠에 所藏된 石物類 遺物은 <御製達川忠烈祠碑> 1點, <完山李氏貞烈碑> 1점, <下馬碑> 1점 등 포함 3種 3點이다.

■ 御製達川忠烈祠碑(02)

<御製達川忠烈祠碑>는 將軍의 業績을 기리기 위하여 1791(정조 15, 신해)년 7월 21일에 正祖가 친히 碑文을 제술하여 碑를 세우도록 下命하자, 동년(1791) 8월 모일에 세워진 石碑이다.⁴⁹⁾ 上壇은 세로 73.0cm 가로 136.0cm 폭 105.0cm이고

48) 『林忠愍公實紀』卷1. ‘遺文’條에 “三尺龍泉萬卷書 皇天生我意何如 山東宰相山西將 彼丈夫兮我丈夫”의 ‘龍泉劍’의 劍銘은 수록되어 있으나, ‘秋蓮刀’의 刀銘은 수록되지 않고 있다(金憲 輯, 『林忠愍公實紀』卷1 ‘遺文’條). ‘秋蓮刀’의 刀銘은 ‘秋蓮刀’의 刀身に ‘時呼時呼否再來/ 一生一死都在筵/ 平生丈夫報國心/ 三尺秋蓮磨十年’의 刀銘을 비롯한 ‘林將合有時’ 등 33자의 陰刻 銘文이 있으며, 保管函의 正面에 ‘忠愍公林將軍秋蓮劍’이라 墨書하고 그 아래에 雙行 小字의 ‘時呼時呼否再來/ 一生一死都在筵/ 平生丈夫報國心/ 三尺秋蓮磨十年’의 28자가 墨書되어 있을 뿐이다.

49)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正祖 15年 7月 21(甲午)日條.

碑身은 세로 184.0cm 가로 71.0cm 폭 43.0cm이며 基壇은 세로 56.0cm 가로 152.0cm 폭 103.0cm이다. 臺石과 碑身石은 花崗巖이고 앞·뒷면에 碑文을 새겼으며 字數는 1,420자이다. 前面 상단에서 左行으로 ‘御製達川忠烈祠碑’라는 碑題 8자를 篆刻하였으며 글자의 크기는 上下 13.0cm 左右 9.0cm로 本文이 3.0cm인데 비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碑題 다음에 本文을 새겼으며 本文의 末尾에는 書者와 篆者의 職銜과 姓名 등이 새겨져 있다. 書者는 李秉模(1742-1806)이며 篆者는 尹東暹(1710-1795)이다.⁵⁰⁾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碑石이 땀을 흘려 그때마다 明紬 2필로 닦았다는 傳說이 있다. <御製達川忠烈祠碑>는 2006년 10월 4일에 忠北 有形文化財 제272호로 指定되어 維持·管理되고 있다.

■ 夫人完山李氏貞烈碑(20) / [林慶業 夫人 完山李氏 貞烈碑]

<林慶業 夫人 完山李氏 貞烈碑>는 1747(영조 23, 정묘)년에 장군의 夫人 完山 李氏의 貞烈을 기리기 위해 세운 碑이다. 夫人 完山 李氏는 이미 1697(숙종 23)년 12월 19일에 參贊官 崔商翼이 將軍의 夫人 全州 李氏의 褒獎을 아뢰자 國王의 特命으로 旌表된 바 있었다.⁵¹⁾⁵²⁾ 碑身은 세로 215.0cm 가로 83.0cm 폭 27.0cm이며, 基壇은 세로 36.0cm 가로 141.0cm 폭 86.0cm이다. 前面의 大字(陰刻)인 “大明忠臣朝鮮林將/ 軍慶業妻貞夫人/ 完山李氏貞烈碑”는 前縣監 韓德一(?-?)의 글씨이며, 後面의 小字(陰刻)인 “夫人鎮安大君七世孫潛之女 … 記顯

“御製忠愍公林慶業碑銘 命刻豎于窺川祠.”

50) 正祖 御製, 李秉模 書, 尹東暹 篆, 『御製碑文』. 拓本. [忠州]: [拓本者不明], [拓本年不明]. 忠烈祠所藏本(19).

“… 資憲大夫禮曹判書兼知經筵事同知成均館事弘文館提學奎章閣檢校直提學臣李秉模 奉教謹書/ 輔國崇祿大夫行判敦寧府事兼吏曹判書判義禁府事知經筵春秋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臣尹東暹奉教謹篆/ 上之十五年辛亥八月 日立.”

51)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23年 12月 19(乙丑)日條.

“召對玉堂官 參贊官崔商翼曰 林慶業復官賜祭 聽聞感歎 其妻李氏 拘繫彼中 虜人鉤問 慶業去處 終始不言 歎曰 夫爲大明忠臣 吾當死從良人 同爲大明之鬼 遂自剄而死 其變成 節義 尤是今古所罕 似當有褒獎之典 上令該曹稟處 禮曹請加旌表 許之.”

52)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3, 年譜, 崇禎 70(肅宗 23)年 12月條.

“特命李夫人閏 十九日召對 參贊官李商翼啓曰 … 聞者所當有旌閭表獎之典 故敢達矣 … 傳曰 特爲旌閭.”

未以此復焉”는 1747(영조 23, 丁卯)년 모월 모일에 資憲大夫 知中樞府事 李世煥⁵³⁾이 짓고 進士 李挺河(?-?)가 쓴 글씨이다.

■ 下馬碑(54)

<下馬碑>는 忠烈祠 입구에 세워져 있는 下馬碑로 크기는 세로 130.0cm 가로 36.0cm 폭 17.5cm 이다. 忠烈祠 앞을 지나거나 그 안으로 들어올 때에는 身分의 高下를 막론하고 누구나 타고 가던 말에서 내리라는 뜻을 새긴 石碑이다. 石質이나 筆體로 보아 1727(영조 3)년에 충렬사가 賜額될 무렵에 제작된 것이 아닌가 한다.⁵⁴⁾⁵⁵⁾

3.1.3 木物類

忠烈祠에 所藏된 木物類 遺物은 <忠烈祠懸板> 1點, <「林將軍傳」板木> 5점, <忠烈祠講堂懸板> 1점 등 道합 3種 7點이다.

■ 忠烈祠 懸板(33)

<忠烈祠 懸板>은 忠烈祠의 賜額懸板으로 1727(영조 3)년 6월 5(경인)일에 賜額되었다.⁵⁶⁾⁵⁷⁾ 内部는 세로 48.5cm 가로 111.0cm이며, 전체는 세로 58.0cm 가로

53) 李世煥(?-?): 朝鮮時代 後期の 인물로 忠北 陰城郡에서 출생하였다. 本貫은 星州이고 字는 季章이며 號는 果齋이다. 先正臣 朴世采의 가르침 아래 修學하였으며 英祖가 王世弟로 있을 때 師傅로 薦學되었으며, 이후 通政大夫와 知敦寧府事를 역임하였다. 1773(영조 49)년에 孝獻이라는 諡號가 下賜되었다.

54)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英祖 3年 6月 5(庚寅)日條.
“忠州幼學鄭萬根等上疏 請宣賜忠愍公林慶業祠院之額 批曰 林慶業之孤忠大義 先朝之所稱賞 舉國之所共頌 近來書院賜額之弊 予實病之 至於此院 與他有別 其令該曹 卽爲舉行 …”

55)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3, 年譜, 崇禎 100(英祖 3)年條.
“賜額忠烈祠 遣官致祭.”

56)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英祖 3年 6月 5(庚寅)日條.
“忠州幼學鄭萬根等上疏 請宣賜忠愍公林慶業祠院之額 批曰 林慶業之孤忠大義 先朝之所稱賞 舉國之所共頌 近來書院賜額之弊 予實病之 至於此院 與他有別 其令該曹 卽爲舉

142.5cm이다. 末尾의 “崇禎紀元後丁未(闕落)/ 賜額”에서 闕落部分에는 ‘月日’이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精確한 月日은 알 수 없다.

■ 『林將軍傳』 板木(34-38)

<『林將軍傳』 板木>은 숙종 15(1689)년 여름에 尤庵 宋時烈(1607-1689)이 撰述한 『林將軍傳』과 疏齋 李頤命(1658-1722)이 撰述한 『林將軍傳後敘』를 板刻한 冊板이다. 冊板의 道幅 5枚이나 제1판의 前面은 板刻되지 않은 空面이며, 누구에 의하여 언제 어디에서 板刻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冊板은 세로 25.7cm 가로 55.0cm 두께 2.3cm 내외이고 全匡은 全匡은 세로 21.0cm 가로 37.6cm 내외이며 마구리는 세로 26.8cm 가로 3.5cm 두께 3.8cm 내외이다. 板式은 每半葉 10行 16字에 板心題는 ‘林將軍傳’이며, 板心의 魚尾는 上內向2葉花紋魚尾(1-2장)와 內向2葉花紋魚尾(3-9장)가 혼용되어 있다.

■ 忠烈祠講堂 懸板(53)

<忠烈祠講堂 懸板>은 忠烈祠의 講堂에 걸렸던 懸板으로 1782(정조 6, 임인)년 9월 하한에 下賜된 것이다. 내부 규격은 세로 44.5cm 가로 114.5cm이며, 전체 크기는 세로 59.0cm 가로 143.0cm이다. 末尾에 ‘□□’의 落款이 있으나 判讀이 어렵다.

3.1.4 紙物類

忠烈祠에 所藏된 遺物의 대부분은 紙物類이다. 忠烈祠에 소장된 紙物類 遺物의 製作時代는 仁祖朝 24점(55.8%), 肅宗朝 2점(4.7%), 英祖朝 3점(7.0%), 正祖朝 9점(20.9%), 純祖朝 2점(4.7%), 高宗朝 1점(2.3%), 近代 1점(2.3%), 不明

行(史臣曰 慶業 忠州人也 當南漢下城之後 募僧獨步 齋奏文入送中國 崇禎皇帝下詔褒嘉 及假·錦之役 忠節益著 既而浮海入天朝 拜副摠制之職 遂以掃清沙漠爲己任 而明運已訖 及東還 爲賊臣自點所構 死於獄 邦人憐之 卽其所居之地 立祠以祀 奉其遺像 像卽皇朝所賜也 至是 萬根等疏請賜額 上特許之.)”

57)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3, 年譜, 崇禎 100(英祖 3)年條.

“賜額忠烈祠 遣官致祭.”

1점(2.3%) 등 포함 41종 43점(100%)이다. 한편 忠烈祠에 소장된 紙物類 유물들의 主題는 繪畫類·文書類·典籍類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遺物의 點數는 繪畫類 1점(2.3%), 文書類 32점(74.4%), 典籍類 10점(23.3%) 등 포함 43점(100%)이다. 이들 중 文書類에는 教旨 24점, 祭文, 2점, 地圖 3점, 戶口 1점, 其他 2점이며, 典籍類에는 事目 1점, 院誌 2점, 笏記 2점, 碑文 1점, 實紀 2종 4점이다.

3.1.4.1 繪畫類

■ 遺像(01) / [忠愍公 林慶業 肖像]

원래 장군의 肖像은 1640(인조 18, 경진)년 6월 14일에 明朝의 將帥가 장군의 肖像을 皇帝에게 보이고자 明朝의 畫師를 보내 2幅을 그려서 1幅은 明朝로 가져가고 1幅은 將軍의 任所에 남기고 간 것⁵⁸⁾이라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林忠愍公實紀』 <年譜>의 1788(정조 12, 승정 161, 무신)년 11월조에 의하면 國王이 忠烈祠를 다시금 修葺할 것을 特命하고 아울러 度支長에게 命하여 畫工을 보내 將軍의 眞像을 改摸하도록 하였는데, 동년(1788) 11월 20일에 장군의 손자 林泰遠(?-?)이 特教에 따라 畫師와 함께 忠烈祠로 가서 翌日(21)부터 遺像의 改摸을 시작하여 12월 14일에 종료하고 그 翌日(15)에는 舊本을 宗家의 祠堂에 移奉한 바 있다.⁵⁹⁾ 본 <忠愍公 林慶業 肖像>은 肖像의 우측 상단에 있는 ‘忠愍公林將軍遺像’이라는 畫題로 볼 때, 장군의 諡號가 1706(숙종 32)년에 ‘忠愍’으로 下賜된 점⁶⁰⁾⁶¹⁾과 『林忠愍公實紀』 <年譜>의 1788(정조 12, 승정 161)년 11월조의 기록

58)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3, 年譜, 崇禎 13(仁祖 18)年 6月條.

“天將密遣畫師 畫公像而去.”

59)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3, 年譜, 崇禎 161(正祖 11)年 11月條.

“特命嚴飭道臣更修忠烈祠 仍命度支長 送畫工改摸眞像 劃給守塚三戶 十四日 命寧陵令 林泰遠 持日錄入侍 … 二十日 泰遠因特教 與畫師往忠烈祠 翌日始摸遺像 十二月十四日 告訖 翌日奉安舊本 移奉于宗家祠堂.”

60)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32年 2月 5(甲午)日條.

“以金昌協爲大提學 賜故相洪瑞鳳諡文靖 知事林慶業諡忠愍 副提學辛應時諡文莊 參判

등으로 미루어 짐작하면 1788(정조 12)년 12월 14일에 改摸된 改摸本인 듯하다. 크기는 세로 171.0cm 가로 122.0cm이며, 正面 全身坐像이다. 전체적인 形式과 表現技法은 조선시대 肖像畵의 전형적 특징인 左顔七分面과는 거리가 있으나, 紗帽·團領·胸背·帶·黑皮靴 등을 착용한 朝鮮時代 官僚 常服의 典型을 보여주고 있다. 服飾의 전반적 모습은 17-18세기의 특징을 띄고 있으며, 우측으로 什器類가 표현되어 있고 正面에서나 양옆에서나 사람을 보는듯한 눈동자에 특이한 畵法으로 描寫되어 있다. 본 <忠愍公 林慶業 肖像>과 유사한 將軍의 肖像으로 忠州市 泮未面 洗星里 150-11 忠愍公 別廟에 보관되어 있는 <忠愍公 林慶業 肖像>(忠北有形文化財 제179호)이 있는데, 이는 『林忠愍公實紀』 <年譜>의 1788(정조 12, 무신)년 11월조의 “동년(1788) 11월 20일에 將軍의 孫子 林泰遠이 特教에 따라 畵師와 함께 忠烈祠로 가서 翌日(21)부터 遺像의 改摸를 시작하여 12월 14일에 종료하고 그 翌日(15)에는 舊本을 宗家의 祠堂에 移奉한 바 있다”⁶²⁾고 한 舊本이 아닌가 한다. 전체적인 構成은 양자가 동일하나 細部描寫의 技法과 水準은 別廟本이 다소 높게 評價되고 있다. 본 <忠愍公 林慶業 肖像>은 2009년 12월 4일에 忠北 文化財資料 제69호로 指定되어 維持·管理되고 있다.

3.1.4.2 文書

(가) 教旨·教書

■ 教旨(39) / [1631年 林慶業 教旨]⁶³⁾

<1631年 林慶業 教旨>는 1631(인조 9, 승정 4, 신미)년 윤11월 27일에 장군을

俞弼諡文忠 ….”

61)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3, 年譜, 崇禎 79(肅宗 32)年條.

“賜諡忠愍 盛衰純固曰忠 在國逢難曰愍.”

62)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3, 年譜, 崇禎 161(正祖 11)年 11月條.

“特命嚴飭道臣 更修忠烈祠 仍命度支長 送畵工改摸眞像 劃給守塚三戶 十四日 命寧陵 令林泰遠 持日錄入侍 … 二十日 泰遠因特教 與畵師往忠烈祠 翌日始摸遺像 十二月十四日 告訖 翌日奉安舊本 移奉于宗家祠堂.”

63) 文書類의 角括弧 속의 命名法은 『古書·古文書 調査便覽』 (大田: 文化財廳, 2009)에 의거하여 作成하였다.

‘嘉善大夫 行定州牧使’로 임명한 教旨이다.⁶⁴⁾ 크기는 세로 47.2cm 가로 66.3cm이며, ‘施命之寶’(10.0×10.0cm)의 印文이 있다.

■ 教旨(21) / [1633年 林慶業 教旨]

<1633年 林慶業 教旨>는 1633(인조 11, 승정 6, 계유)년 2월 초2일에 장군을 ‘嘉善大夫 行寧邊大都護府使’로 임명한 教旨이다.⁶⁵⁾⁶⁶⁾ 크기는 세로 47.3cm 가로 69.0cm이며, ‘施命之寶’(10.0×10.0cm)의 印文이 있다.

■ 教旨(40) / [1634年 林慶業 教旨]

<1634年 林慶業 教旨>는 1634(인조 12, 승정 7, 갑술)년 5월 초8일에 장군을 ‘嘉善大夫 行龍驤衛副護軍’으로 임명한 教旨이다.⁶⁷⁾ 크기는 세로 48.0cm 가로 68.3cm이며, ‘施命之寶’(10.0×10.0cm)의 印文이 있다.

■ 教旨(41) / [1634年 林慶業 教旨]

<1634年 林慶業 教旨>는 1634(인조 12, 승정 7, 갑술)년 5월 29일에 장군을 ‘嘉善大夫 義州府尹’으로 임명한 教旨이다.⁶⁸⁾ 크기는 세로 48.0cm 가로 68.3cm이며, ‘施命之寶’(10.0×10.0cm)의 印文이 있다.

64)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2, 年譜, 崇禎 4(仁祖 9)年 閏11月 27日條.

“拜定州牧使.”

65)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仁祖 11年 1月 30(壬戌)日條.

“以林慶業爲清北防禦使 時 備局以爲 兵使入守安州 則清北列城 無號令之人 林慶業久在清北 聲績表著 若差防禦使 常時檢飭山城 臨亂領率江邊精銳 以爲安州聲援 合於機宜 上從之.”

66)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2, 年譜, 崇禎 6(仁祖 11)年條.

“特命起復 除清北防禦使 仍拜寧邊府使.”

67)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2, 年譜, 崇禎 7(仁祖 12)年 5月 8日條.

“授副護軍.”

68)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2, 年譜, 崇禎 7(仁祖 12)年 5月 29日條.

“拜義州府尹兼清北防禦使 … 答曰 … 乃給體府銀千兩及綿段百匹.”

■ 教旨(42) / [1634年 林慶業 教旨]

<1634年 林慶業 教旨>는 1634(인조 12, 승정 7, 갑술)년 6월 초6일에 장군을 ‘義州鎮兵馬僉節制使’로 임명한 教旨이다.⁶⁹⁾ 크기는 세로 48.2cm 가로 66.7cm이며 ‘施命之寶’(10.0×10.0cm)의 印文이 있다.

■ 教旨(23) / [1634年 林慶業夫人李氏 教旨]

<1634年 林慶業夫人李氏 教旨>는 1634(인조 12, 승정 7, 갑술)년 7월 13일에 ‘嘉善大夫 義州府尹’인 장군의 부인 李氏를 『大典』에 의거하여 장군의 職任에 따라 ‘淑夫人’에서 ‘貞夫人’으로 陞資한 教旨이다. 크기는 세로 48.0cm 가로 69.3cm이며, ‘施命之寶’(10.0×10.0cm)의 印文이 있다.

■ 教旨(43) / [1635年 林慶業 教旨]

<1635年 林慶業 教旨>는 1635(인조 13, 승정 8, 을해)년 4월 21일에 장군을 ‘嘉善大夫 義州府尹’으로 임명한 教旨이다.⁷⁰⁾ 크기는 세로 47.8cm 가로 68.8cm이며, ‘施命之寶’(10.0×10.0cm)의 印文이 있다.

■ 教旨(24) / [1636年 林慶業 教旨]

<1636年 林慶業 教旨>는 1636(인조 14, 승정 9, 병자)년 2월 29일에 장군을 ‘嘉善大夫 義州府尹’으로 임명한 教旨이다.⁷¹⁾ 크기는 세로 48.5cm 가로 66.3cm이며, ‘施命之寶’(10.0×10.0cm)의 印文이 있다.

■ 教旨(22) / [1636年 林慶業 教旨]

<1636年 林慶業 教旨>는 1636(인조 14, 승정 9, 병자)년 4월 16일에 장군을

69)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2, 年譜, 崇禎 7(仁祖 12)年 6月 6日條.
“加義州鎮兵馬僉節制使.”

70)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2, 年譜, 崇禎 8(仁祖 13)年 4月 21日條.
“陞嘉善.”

71)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仁祖 14年 2月 5(庚辰)日條.

“都元帥金自點上疏 請赦義州府尹林慶業擅遣商賈之罪 使之還赴任所 撫恤軍民 招集散亡 上從之.”

‘嘉義大夫 義州府尹’으로 任命한 교지이다.⁷²⁾ 크기는 세로 47.3cm 가로 68.5cm이며, ‘施命之寶’(10.3×10.3cm)의 印文이 있다.

■ 教旨(45) / [1637年 林慶業 教旨]

<1637年 林慶業 教旨>는 1637(인조 15, 승덕 2, 정축)년 7월 17일에 장군을 ‘嘉善大夫 義州府尹’으로 資級을 降等하여 임명한 教旨이다. 크기는 세로 39.2cm 가로 47.5cm이며, ‘施命之寶’(10.3×10.3cm)의 印文이 있다.

■ 教旨(44) / [1637年 林慶業 教旨]

<1637年 林慶業 教旨>는 1637(인조 15, 승덕 2, 정축)년 12월 초2일에 장군을 ‘嘉善大夫 義州府尹’으로 資級을 降等하여 임명하였다가 ‘嘉義大夫 義州府尹’으로 還級시킨 教旨이다. 크기는 세로 42.7cm 가로 51.5cm이며, ‘施命之寶’(10.3×10.3cm)의 印文이 있다.

■ 教旨(46) / [1637年 林慶業 教旨]

<1637年 林慶業 教旨>는 1637(인조 15, 승덕 2, 정축)년 12월 초2일에 장군을 ‘嘉義大夫 義州府尹’으로 임명한 教旨이다. 크기는 세로 39.2cm 가로 47.5cm이며, ‘施命之寶’(10.0×10.0cm)의 印文이 있다.

■ 教旨(47) / [1638年 林慶業 教旨]

<1638年 林慶業 教旨>는 1638(인조 16, 승덕 3, 무인)년 8월 14일에 장군을 ‘資憲大夫 行龍驤衛大護軍’으로 임명한 教旨이다.⁷³⁾ 크기는 세로 47.5cm 가로 69.5cm이며, ‘施命之寶’(10.3×10.3cm)의 印文이 있다.

72)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2, 年譜, 崇禎 9(仁祖 14)年 4月條.
“復拜義州府尹.”

73)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2, 年譜, 崇禎 11(仁祖 16)年 8月條.
“復命起復 敍授大護軍兼助防將 特下別諭.”

■ 教旨(49) / [1638年 林慶業 教旨]

<1638年 林慶業 教旨>는 1638(인조 16, 승덕 3, 무인)년 9월 19일에 장군을 ‘資憲大夫 行龍驤衛大護軍) 兼安州牧使’로 임명한 教旨이다.⁷⁴⁾⁷⁵⁾ 크기는 세로 48.0cm 가로 67.0cm이며, ‘施命之寶’(10.3×10.3cm)의 印文이 있다.

■ 教旨(05) / [1638年 林慶業 教旨]

<1638年 林慶業 教旨>는 1638(인조 16, 승덕 3, 무인)년 9월 19일에 장군을 ‘資憲大夫 行平安道兵馬水軍節度使’로 임명한 教旨이다. 크기는 세로 48.0cm 가로 67.5cm이며, ‘施命之寶’(10.3×10.3cm)의 印文이 있다.

■ 教旨(48) / [1638年 林慶業 教書]

<1638年 林慶業 教書>는 1638(인조 16, 승덕 3, 무인)년 9월 모일에 장군을 ‘平安道兵馬節度使 兼安州牧使’로 임명하면서 장군에게 熟馬 1匹과 함께 下賜한 教諭文이다.⁷⁶⁾ 내용은 “卿이 전에 助防將으로 있을 때 나라를 위해 모든 힘을 다 바친 것은 지극히 嘉尙한 일이다. 熟馬 1匹을 賜給하노니 卿은 이를 領受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크기는 세로 43.0cm 가로 57.2cm이며, ‘施命之寶’(2顆, 10.0×10.0cm)의 인문이 있다.

■ 教旨(51) / [1639年 林慶業 教書]

<1639年 林慶業 教書>는 1639(인조 17, 승덕 4, 기묘)년 2월 초6일에 장군이 어떤 事件에 연루된 누명으로 待罪할 것을 傳敎하는 教諭文으로 推定된다. 크기는 세로 42.3cm 가로 51.5cm이며, ‘施命之寶’(8.2×8.2cm)의 印文이 있다.

74)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2, 年譜, 崇禎 11(仁祖 16)年 9月條.
“拜平安兵使兼安州牧使 下諭錫馬.”

75)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仁祖 16年 9月 19(戊寅)日條.
“以 … 林慶業爲平安兵使.”

76)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2, 年譜, 崇禎 11(仁祖 16)年 9月條.
“拜平安兵使兼安州牧使 下諭錫馬.”

■ 教旨(12) / [1639年 林慶業夫人李氏 教旨]

<1639年 林慶業夫人李氏 教旨>는 1639(인조 17, 승덕 4, 기묘)년 4월 모일에 ‘資憲大夫 行平安道兵馬節度使’인 장군의 夫人 李氏를 『大典』에 의거하여 장군의 職任에 따라 ‘淑夫人’에서 ‘貞夫人’으로 陞資한 教旨이다. 크기는 세로 47.5cm 가로 69.0cm이며, ‘施命之寶’(10.0×10.0cm)의 印文이 있다.

■ 教旨(27) / [1639年 林慶業 教旨]

<1639年 林慶業 教旨>는 1639(인조 17, 승덕 4, 기묘)년 10월 25일에 장군을 ‘正憲大夫 行平安道兵馬水軍節度使’로 임명한 教旨이다.⁷⁷⁾ 크기는 세로 47.5cm 가로 69.0cm이며, ‘施命之寶’(10.0×10.0cm)의 印文이 있다.

■ 教旨(50) / [1640年 林慶業 教書]

<1640年 林慶業 教書>는 1640(인조 18, 승덕 5, 경진)년 4월 13일에 ‘舟師上將’인 장군에게 發兵할 수 있는 押第를 내린 教諭文으로 推定된다.⁷⁸⁾ 押第는 朝鮮時代 留守·監司·摠戎使·節度使·防禦使 등에게 내려주어 급히 發兵할 필요가 있을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兵符로 모양은 둥글고 한 면에는 ‘第一符’라 쓰고 다른 면에는 國王花押의 親署가 있다. 크기는 세로 42.5cm 가로 58.1cm이며, ‘施命之寶’(3顆, 10.2×10.2cm)의 印文이 있다.

■ 教旨(10) / [1698年 林慶業 教旨]

<1698年 林慶業 教旨>는 1698(숙종 24, 강희 37, 무인)년 3월 13일에 國王의 특명으로 장군의 官爵을 ‘正憲大夫 行平安道兵馬水軍節度使 兼安州牧使’로 追復한 教旨이다. 이는 1697(숙종 23, 강희 36, 정축)년 12월 초9(을묘)일에 國王의 특명으로 장군의 官爵이 回復된 것에 따라 내려진 教旨이다.⁷⁹⁾⁸⁰⁾ 크기는 세로

77)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2, 年譜, 崇禎 12(仁祖 17)年 10月 25日條.
“陞正憲.”

78)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2, 年譜, 崇禎 13(仁祖 18)年 4月 13日條.
“爲舟師上將.”

76.5cm 가로 101.0cm이며, ‘施命之寶’(10.0×10.0cm)의 印文이 있다.

■ 教旨(03) / [1706年 林慶業 教旨]

<1706年 林慶業 教旨>는 1706(숙종 32, 강희 45, 병술)년 4월 모일에 ‘正憲大夫 知中樞府事’였던 장군을 ‘崇政大夫 議政府左贊成 兼判義禁府事 世子貳師 知訓練院事 五衛都摠府都摠管’으로 贈職하고 ‘忠愍公’으로 賜諡한 教旨⁸¹⁾⁸²⁾이다. 이는 1697(숙종 23, 강희 36, 정축)년 12월 초9(을묘)일에 국왕의 특명으로 장군의 官爵이 回復되고 1706(숙종 32, 강희 45, 병술)년 2월 초5(갑오)일에 장군에게 ‘忠愍’⁸³⁾이란 諡號가 下賜된 것에 따라 내려진 것이다.⁸⁴⁾⁸⁵⁾ 크기는 세로 66.8cm 가로 98.0cm이며, ‘施命之寶’(10.0×10.0cm)의 印文이 있다.

79)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23年 12月 9(乙卯)日條.

“林慶業之孫重蕃上言 訟其祖冤 … 傳曰 林慶業之不爲預知兇謀之狀 業已聖祖之所洞燭而逃入中原一款 事雖未成 志在尊周 當時聖祖之屢動嗟惜 自有微意 則追聖祖之志 昭洗丹書 獎其扶義 恐無不可也 特爲復官賜祭.”

80)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3, 年譜, 崇禎 70(肅宗 23)年 12月條.

“特命復官賜祭 … 是年九月二十四日 公之嗣子重蕃 上言訴冤 乞蒙褒贈旌閭之恩 … 傳曰 … 特爲復官賜祭.”

81)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32年 2月 5(甲午)日條.

“以金昌協爲大提學 賜故相洪瑞鳳諡文靖 知事林慶業諡忠愍 副提學辛應時諡文莊 參判俞燾諡文忠 ….”

82)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3, 年譜, 崇禎 79(肅宗 32)年條.

“賜諡忠愍 盛衰純固曰忠 在國逢難曰愍.”

83) 본 教旨에는 ‘成衰純固曰忠 在國逢難曰愍’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林忠愍公實紀』에는 ‘盛衰純固曰忠 在國逢難曰愍’으로 기록되어 있다(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3, 年譜, 崇禎 79(肅宗 32)年條).

84)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23年 12月 9(乙卯)日條.

“林慶業之孫重蕃上言 訟其祖冤 … 傳曰 林慶業之不爲預知兇謀之狀 業已聖祖之所洞燭而逃入中原一款 事雖未成 志在尊周 當時聖祖之屢動嗟惜 自有微意 則追聖祖之志 昭洗丹書 獎其扶義 恐無不可也 特爲復官賜祭.”

85)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3, 年譜, 崇禎 70(肅宗 23)年 12月條.

“特命復官賜祭 … 是年九月二十四日 公之嗣子重蕃 上言訴冤 乞蒙褒贈旌閭之恩 … 傳曰 … 特爲復官賜祭.”

■ 教旨(06) / [1756年 林慶業夫人李氏 教旨]

<1756年 林慶業夫人李氏 教旨>는 1756(영조 32, 건륭 2, 병자)년 2월 初4일에 國王의 特別 傳敎에 따라 ‘正憲大夫 知中樞府事’였던 장군을 ‘崇政大夫 議政府 左贊成 兼判義禁府事 世子貳師 知訓練院事 五衛都摠府都摠管’으로 贈職하도록 傳敎한 教旨이다.⁸⁶⁾⁸⁷⁾ 크기는 세로 56.5cm 가로 82.3cm이며, 印文은 없다.

■ 教旨(04) / [1756年 林慶業夫人李氏 教旨]

<1756年 林慶業夫人李氏 教旨>는 1756(영조 32, 건륭 2, 병자)년 2월 초4일에 ‘崇政大夫 議政府 左贊成 兼判義禁府事 世子貳師 知訓練院事 五衛都摠府都摠管’으로 追贈된 장군의 夫人 李氏를 『法典』에 의거하여 장군의 贈職에 따라 ‘貞夫人’에서 ‘貞敬夫人’으로 追贈한 教旨이다. 크기는 세로 56.5cm 가로 83.8cm이며, 印文은 없다.

(나) 祭文

■ 祭文(25) / [1792年 林慶業 祭文]

<1792年 林慶業 祭文>은 1792(정조 16, 건륭 57, 임자)년 3월 27일에 禮曹佐郎 李顯默(1748-?)으로 하여금 장군에게 致祭한 祭文이다. 이는 1792(정조 16)년 3월 9(무인)일에 將軍의 嗣孫인 林必榮(1771-1836)의 及第로 장군에게 致祭하도록 하명된 것에 따른 것이다.⁸⁸⁾ 크기는 세로 52.6cm 가로 44.6cm이며, 後代에 筆寫한 祭文인 듯하다.

■ 祭文(26) / [1816年 林慶業 祭文]

<1816年 林慶業 祭文>은 1816(순조 16, 승정 189, 병자)년 9월 12일 忠州牧使

86)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英祖 32年 2月 1(己亥)日條.

“命贈林慶業職 調用其奉祀孫右職 是日 上命入林將軍傳 使筵臣讀奏 感慨有是命.”

87)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3, 年譜, 崇禎 129(英祖 32)年條.

“特命贈職致祭 嗣孫廷燮 右職調用.”

8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正祖 16年 3月 9(戊寅)日條.

“致祭于忠愍公林慶業 慶業祀孫必榮 以內禁衛登第也.”

金基豊(1754-1827)을 과견하여 장군에게 致祭한 祭文이다. 이는 1816(순조 16)년 4월 5(갑인)일에 左議政 韓用龜(1747-1828)의 건의로 장군의 墓所에 近臣을 보내 致祭하고⁸⁹⁾ 이어 동년(1816) 4월 25(갑술)일에 備局의 啓狀에 따라 장군의 墓所에 道官을 보내 致祭할 것이 윤희되면서,⁹⁰⁾ 동년(1816) 9월 12일에 忠州牧使 金基豊이 致祭한 祭文인 것으로 짐작된다. 크기는 세로 52.6cm 가로 47.0cm이며, 後代에 筆寫한 祭文인 듯하다.

(다) 地圖

■ 嶺南沿海形便圖(13)

<嶺南沿海形便圖>는 장군이 樂安郡守로 재임하던 1626(인조 4) - 1628(인조 6)년 무렵에 보던 南海岸一帶의 軍事地圖로 장군의 손때가 묻은 遺品 중의 하나로 추정된다.⁹¹⁾⁹²⁾⁹³⁾⁹⁴⁾ 따라서 本 <嶺南沿海形便圖>는 1626(인조 4) - 1628(인조 6)년 무렵에 제작된 形便圖인 듯하다. 地圖는 물론 南海海島·巨濟海島·寧海·東萊水營·統營·安義·大洋·盈德·清河·興海·延日·長鬐·慶州·蔚山·機張·

89)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純祖 16年 4月 5(甲寅)日條.
“命南漢顯節祠·江都忠烈祠 文正公尹煌家 忠愍公林慶業墓 遣近臣致祭 … 以今年丙子舊甲復回 從左議政韓用龜啓言也.”

90)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純祖 16年 4月 25(甲戌)日條.
“備局啓言 英廟丙子 致侑於殉節斥和諸臣 蓋出於曠感之聖意也 今又舊甲重回 宜有追述之道 故向筵以忠烈祠 顯節祠及文正公尹煌家 忠愍公林慶業墓遣官致祭之意 陳達蒙允 … 香祝則定曹吏賚傳之意 請分付該曹該道 允之.”

91)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2, 年譜, 天啓 6(仁祖 4)年條.
“除樂安郡守 莅任數月 治積大著.”

92)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2, 年譜, 天啓 7(仁祖 5)年條.
“領軍至江華而還.”

93)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仁祖 6年 2月 8日(庚子)日條.
“金瑬啓曰 臣從事官金鑿 巡審忠清右道及全羅道 道內守令賢否 依事日廉訪 牒報臣處 樂安郡守林慶業 居官清慎 盡心職事 … 趙希逸·金守謙·沈器重罷黜 林慶業等善治守令 係干恩賞 恭候上裁 … 答曰 依啓 林慶業等各賜表裏一襲 且守令中優備軍器者 亦不可不論賞矣.”

94)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2, 年譜, 崇禎 元(仁祖 6)年條.
“被劾罷歸 爲體府別將.”

東萊·金海·態川·昌原·柒原·鎭海·固城·統營·晉州·泗川·昆陽·河東 등 南海 一帶의 軍事要衝地의 상황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크기는 세로 64.3cm 가로 376.0cm이며, 製作面에 있어 類例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특이한 것이다.

■ 釜山鎭圖(16)

<釜山鎭圖>는 장군이 樂安郡守로 재임하던 1626(인조 4) - 1628(인조 6)년 무렵에 보던 釜山鎭 一帶의 軍事地圖로 장군의 손때가 묻은 遺品 중의 하나로 추정된다.⁹⁵⁾⁹⁶⁾⁹⁷⁾⁹⁸⁾ 따라서 <釜山鎭圖>는 1626(인조 4) - 1628(인조 6)년 무렵에 제작된 鎭圖인 듯하다. 地圖는 물론 釜山鎭의 각종 軍事施設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크기는 세로 65.0cm 가로 53.5cm이며, 製作面에 있어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특이한 것이라 한다.

■ 鴨綠江沿邊防衛圖(18)

<鴨綠江沿邊防衛圖>는 장군이 平壤中軍,⁹⁹⁾ 劔山山城防禦使,¹⁰⁰⁾ 定州牧使,¹⁰¹⁾ 淸北防禦使,¹⁰²⁾ 寧邊府使,¹⁰³⁾ 義州府尹,¹⁰⁴⁾ 義州鎭兵馬僉節制使,¹⁰⁵⁾ 水

95)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2, 年譜, 天啓 6(仁祖 4)年條.

“除樂安郡守 莅任數月 治積大著.”

96)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2, 年譜, 天啓 7(仁祖 5)年條.

“領軍至江華而還.”

97)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仁祖 6年 2月 8日(庚子)日條.

“金瑬啓曰 臣從事官金槃 巡審忠淸右道及全羅道 道內守令賢否 依事日廉訪 牒報臣處 樂安郡守林慶業 居官淸慎 盡心職事 … 趙希逸·金守濂·沈器重罷黜 林慶業等善治守令 係干恩賞 恭候上裁 … 答曰 依啓 林慶業等各賜表裏一襲 且守令中優備軍器者 亦不可不論賞矣.”

98)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2, 年譜, 崇禎 元(仁祖 6)年條.

“被劾罷歸 爲體府別將.”

99)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2, 年譜, 崇禎 3(仁祖 8)年條.

“爲平壤中軍 以平安監司閔公聖徽啓請也.”

100)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2, 年譜, 崇禎 4(仁祖 9)年條.

“除劔山山城防禦使 監築諸城 下諭錫馬.”

101)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2, 年譜, 崇禎 4(仁祖 9)年 閏11月 27日條.

“拜定州牧使.”

軍將,¹⁰⁶⁾ 平安道兵馬節度使,¹⁰⁷⁾¹⁰⁸⁾ 舟師上將¹⁰⁹⁾ 등으로 재임하던 1630(인조 8) - 1604(인조 18)년 무렵에 보던 鴨綠江 沿邊一帶의 軍事地圖로 장군의 손때가 묻은 遺品 중의 하나로 추정된다. 따라서 本 <鴨綠江沿邊防衛圖>는 1630(인조 8) - 1604(인조 18)년 무렵에 제작된 防衛圖인 듯하다. 地圖는 물론 義州·朔州·昌城·碧潼·楚山·渭原·江界 등 鴨綠江 沿邊一帶의 軍事要衝地의 狀況이 상세히 收錄되어 있다. 크기는 세로 42.5cm 가로 226.0cm이며, 製作面에 있어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특이한 것이라 한다.

(라) 戶口

■ 行牧使(52) / [1729年 林廷佐 准戶口]

<1729年 林廷佐 准戶口>는 1729(영조 5, 옹정 7, 기유, 推定)년에 忠州牧 遡未面 第八 香山里 第二統 第三戶에 居住하는 將軍의 孫子인 幼學 林廷佐 (?-?)에게 1726(영조 2, 옹정 4, 병오, 推定)의 戶口와 大조하여 발급된 准戶口이다. 受給者는 林廷佐이며 당시 그의 나이는 42세이다. 父는 學生 林時望(?-?),

-
- 102)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仁祖 11年 1月 30(壬戌)日條.
“以林慶業爲清北防禦使 時 備局以爲 兵使入守安州 則清北列城 無號令之人 林慶業久在清北 聲績表著 若差防禦使 常時檢飭山城 臨亂領率江邊精銳 以爲安州聲援 合於機宜 上從之.”
- 103)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2, 年譜, 崇禎 6(仁祖 11)年條.
“特命起復 除清北防禦使 仍拜寧邊府使.”
- 104)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2, 年譜, 崇禎 7(仁祖 12)年 5月 29日條.
“拜義州府尹兼清北防禦使 … 答曰 … 乃給體府銀千兩及綿段百匹.”
- 105)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2, 年譜, 崇禎 7(仁祖 12)年 6月 6日條.
“加義州鎮兵馬僉節制使.”
- 106)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2, 年譜, 崇禎 10(仁祖 15)年 正月條.
“爲水軍將.”
- 107)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2, 年譜, 崇禎 11(仁祖 16)年 9月條.
“拜平安兵使兼安州牧使 下諭錫馬.”
- 10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仁祖 16年 9月 19(戊寅)日條.
“以 … 林慶業爲平安兵使.”
- 109)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卷2, 年譜, 崇禎 13(仁祖 18)年 4月 13日條.
“爲舟師上將.”

祖는 通德郎 林重蕃(?-?), 曾祖는 正憲大夫行平安道兵馬水軍節度使兼安州牧使贈諡忠愍公 林慶業(1594-1646), 外祖는 學生 郭天楨(?-?) 本玄風, 妻는 柳氏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크기는 세로 67.0cm 가로 62.5cm이며, ‘周挾無改印’(1顆)과 ‘□□之印’(7.0×7.0cm)의 印文이 있다.

(마) 其他

■ 貞敬夫人全州李氏忠烈雙成旌閭文書(08)

<貞敬夫人全州李氏忠烈雙成旌閭文書>는 1788(정조 12, 무신)년 11월 15(계유)일에 義州의 장군 사당에 賜額하고 旌閭의 기록을 ‘有明總兵朝鮮國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諡忠愍公林慶業贈貞敬夫人全州李氏忠烈雙成之間’로 改正하도록 내린 正祖의 傳敎文이다.¹¹⁰⁾ 크기는 세로 62.5cm 가로 287.5cm이다. <貞敬夫人全州李氏忠烈雙成旌閭文書>의 내용¹¹¹⁾은 『朝鮮王朝實錄』의 1788(정조 12)년 11월 15(계유)일조와 『弘齋全書』卷33의 <宣顯忠紀忠二祠額 旌忠烈雙成閭教>¹¹²⁾에도 收錄되어 있으나, 文句上 다소의 차이가 없지 않다. <貞敬

110)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正祖 12年 11月 15(癸酉)日條.

“贈義州文正公金尙憲·忠愍公林慶業祠額 仍改旌忠愍之間 教曰 聞義州有金文正·林忠愍遺祠 是地是祠 豈獨鄉人士女之指點咨嗟 朝家亦爲之激感 書院賜額 雖屬禁典 想或奕奕英爽 尙有眷顧夷猶者 似此妥侑之所 合施另異之舉 況同享者 皆古之名賢也 兩司分在州治與山城 邑人呼以南北祠云 特令攸司 就南祠宣號曰顯忠 北祠曰紀忠 宣額日遺承旨致祭 又閱忠愍手撰遺事·日錄 其夫人之被執也 對敵仰天呼曰 吾家翁爲大明之忠臣 吾則忠臣之妻也 當歸從良人於地下 同爲大明之鬼 遂自決 若夫若婦 可謂匹美併休 令地方官 卽其閭 改旌之曰 有明總兵朝鮮國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忠愍公林慶業贈貞敬夫人全州李氏忠烈雙成之間.”

111) 正祖, 貞敬夫人全州李氏忠烈雙成旌閭文書. [忠州]: [筆寫者不明], [筆寫年不明]. 忠烈祠所藏本(08).

“傳曰聞義州地有金/ 文正林忠愍遺祠是/ 地是祠豈獨鄉人士女/ 之指點咨嗟朝家亦/ 爲之激感書院賜/ 額雖屬禁典想其/ 奕奕英爽尙有眷顧/ 夷猶者似此妥侑之所/ 合施另異之舉況同/ 享者皆古之名賢也/ 兩祠分在州治與山/ 城邑人呼以南北祠云/ 特令攸司就南祠宣/ 號曰顯忠北祠曰紀/ 忠宣額日遺承旨致祭/ 又閱忠愍手撰遺事/ 日錄其夫人之被執也/ 對敵仰天呼曰吾家/ 翁爲/ 大明之忠臣吾卽忠臣/ 之妻也當歸從良人於/ 地下同爲/ 大明之鬼遂自決若夫/ 若婦可謂匹美併休表/ 閭之只及貞敬寔由未/ 遵令地方官卽其閭改/ 旌之曰有/ 明總兵朝鮮國贈崇/ 政大夫議政府左贊成/ 諡忠愍公林慶業贈/ 貞敬夫人全州李氏忠/ 烈雙成之間.”

夫人全州李氏忠烈雙成旌閭文書>의 文體는 『朝鮮王朝實錄』보다는 『弘齋全書』에 收錄된 文章에 가까운 듯하다. 筆體와 墨色 및 紙質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에 下賜된 傳敎文은 아닌 듯하며, 아마도 後代에 이르러 後孫들 중 어느 名筆家가 轉寫한 것이 아닌가 한다.

■ 慶業將軍遺筆(09) / [1642年 林慶業 書簡]

<1642年 林慶業 書簡>은 1642(인조 20, 임오)년 12월 초4일에 장군이 李大將(?) 편으로 夫人 李氏의 書信을 전해 받고 李大將 편으로 答信을 보낸 書簡文으로 매우 귀중한 장군의 遺墨이다. 크기는 세로 24.5cm 가로 40.5cm이다. 장군이 文武를 겸비하였을 뿐 아니라 筆體도 名筆임을 알 수 있는 書簡이다.

3.1.4.3 典籍

(가) 事目

■ 『啓下事目』(11)

<『啓下事目』>은 道光 14(1834, 純祖 34, 甲午)年 七月 某日에 忠勳府에서 國王의 允許事項을 規程하여 將軍의 後孫으로 慶尙道 迎日에 居住하는 忠義衛 林寬龍 등에게 내린 筆寫本의 節目이다. 邊欄은 四周單邊의 靑絲欄이며 半郭은 세로 25.0cm 가로 19.5cm이다. 每半葉의 行數는 6行이고 字數는 不定이며, 魚尾는 없다. 책의 크기는 세로 34.3cm 가로 22.8cm이다. 卷末에는 ‘忠勳府 [手決]’이 있으며, 卷頭에는 ‘施命之印’(1顆)과 本文 中에는 官印(23顆)의 印文이 있다.

112) 正祖 撰, 『弘齋全書』, 影印本 (서울: 太學社, 1978) 卷33 教4 ‘宣顯忠紀忠二祠額 旌忠烈雙成閭敎’條.

“聞義州之地 有金文正林忠愍遺祠 是地是祠 豈獨鄉人士女之指點咨嗟 朝家亦爲之激感 書院賜額 雖屬禁典 想其奕奕奕爽 尙有瞻顧夷猶者 似此妥侑之所 合施另異之舉 況同享者 皆古之名賢也 兩祠分在州治與山城 邑人呼以南北祠云 特令攸司 就南祠宣號曰顯忠北祠曰紀忠 宣額日 遺承旨致祭 又閱忠愍手撰遺事日錄 其夫人之被執也 對敵仰天呼曰 吾家翁爲大明之忠臣 吾卽忠臣之妻也 當歸從良人於地下 同爲大明之鬼 遂自決 若夫若婦 可謂匹美竝休 表閭之只及貞敬 寔由未遑 令地方官 卽其閭 改旌之曰有明總兵朝鮮國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諡忠愍公林慶業 贈貞敬夫人全州李氏忠烈雙成之閭.”

본 <「啓下事目」>에는 道光 14(1834, 純祖 34, 甲午)年 正月 初1日에 作成된 左副承旨 鄭鴻慶의 所志와 將軍의 後孫으로 慶尙道 迎日에 거주하는 忠義衛 林寬龍을 비롯하여 林寬益·林尙杰·林應孫·林尙九·林根孫·林萬守 등의 事例 및 忠勳府에서 判定한 內容 등이 수록되어 있다.

(나) 院誌

■ 「忠烈祠院誌」(14)

<「忠烈祠院誌」>는 1868(고종 15, 무진)년 무렵에 장군과 장군의 부인 全州 李氏의 事蹟을 중심으로 기술된 筆寫本의 院誌이다. 邊欄은 四周單邊이고 半郭은 세로 29.5cm 가로 20.3cm이다. 每半葉의 行數는 10行이고 字數는 21字이며, 魚尾는 없다. 책의 크기는 세로 33.3cm 가로 23.0cm이다. 1868(고종 15, 무진)년에 「春官通攷」續輯을 편찬할 당시에 校正廳에서 “關內의 各 院主들에게 祭享의 配位를 區別하고 院誌에 수록된 事蹟을 消詳히 謄錄하여 上送하라”는 命에 따라 內賜本 「(林忠愍公)實紀」(29-30)를 참고하여 考準한 것이다. 將軍의 後孫인 林輔榮(?-?)이 考準하고 당시 忠烈祠의 齋任이던 李承浩(?-?)가 書寫한 것이다.¹¹³⁾

■ 「忠烈祠誌」(15)

<「忠烈祠誌」>는 1965(을사)년 3월을 전후하여 忠烈祠의 沿革과 事蹟을 收錄한 筆寫本의 院誌이다. 邊欄은 四周單邊이고 半郭은 세로 24.5cm 가로 18.5cm이다. 每半葉의 行數는 12行이고 字數는 30字 內外이며, 魚尾는 없다. 版心題는 ‘忠烈祠誌’이며, 책의 크기는 세로 30.6cm 가로 23.0cm이다. 卷頭에는 金鍾聲(?-?)과 宋錫星(?-?)의 <忠烈祠誌序>에 이어 <忠烈祠誌凡例>와 <忠烈祠誌目錄>이 수록되어 있으며, 卷末에는 金容駿(?-?)의 <忠烈祠誌跋>이 수록되어 있다. 本文은 上編과 下編으로 나누어 수록하고 있다. 1965年 以後의 沿革이나 事蹟은 부분적으로 補入·補筆되어 있다. 院誌 編纂의 都有司 兼 校正은 당시

113) 林輔榮 考準, 李承浩 筆寫, 「忠烈祠院誌」, [忠州]: [李承浩], [筆寫年不明]. 忠烈祠所藏(14). “… 上之五年戊辰 春官通攷續輯時 校正廳關內各院主 享配位區別 院誌所載事蹟 消詳 謄送 故謹考實紀 以爲院誌 後孫輔榮謹考 齋任李承浩謹書.”

의 忠烈祠 院長 金鍾聲이고 編輯 兼 校正은 前色掌 金容駿이며 總務 兼 財務는 당시의 掌財 林炳千(?-?)이다.

(다) 笏記

■ 『各條笏記』(07)

<『各條笏記』>는 宣傳官廳에서 管轄하는 여러 業務와 관련된 各種 儀式的 順序 등을 모아서 收錄한 筆寫本이다. 邊欄은 없으며, 每半葉의 行數는 12行이고 字數는 不定이다. 책의 크기는 세로 26.5cm 가로 21.0cm이다. 수록된 내용은 <宣傳官廳各條笏記> · <華城操式笏記> · <把淸樓水操笏記> 등이다. 宣傳官廳은 朝鮮時代 國王의 侍衛 · 傳令 · 符信의 出納과 旗鼓로써 士卒의 進退를 號令하는 形名 등을 管掌한 官廳이다. 본 <『各條笏記』>는 正祖 18(1794)년에 正祖가 華城을 쌓은 뒤에 마련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후대에 새로이 謄錄한 것인 듯하다.

■ 『笏記』(17) / [『忠烈祠笏記』]

<『忠烈祠笏記』>는 忠烈祠에서 舉行되는 春秋祭享의 儀式節次를 상세하게 收錄한 製作年代 不明의 筆寫本 笏記이다. 邊欄은 四周單邊이며, 半郭은 세로 30.5cm 가로 22.0cm이다. 每半葉의 行數는 8行이고 字數는 16字이며, 魚尾는 上內向黑魚尾이고 版心題는 ‘笏記’이다. 책의 크기는 세로 40.0cm 가로 26.0cm이다. 忠烈祠의 笏記를 중심으로 <祝文式> · <焚香> · <歲次年月日中丁忠烈祠春秋享時諸執事舉案> · <陳設圖> 등이 附錄되어 있다.

(라) 碑文

■ 『御製碑文』(19)

<『御製碑文』>과 관련하여 1791(정조 15, 신해)년 7월 21(갑오)일에 왕명으로 達川祠에 御製碑를 세우도록 下命된 뒤 동년(1791) 8월 모일에 忠烈祠에 ‘御製 達川忠烈祠碑’가 세워진 바 있다.¹¹⁴⁾¹¹⁵⁾ 碑文의 撰者는 正祖이고 書者는 李秉模

(1742-1806)이며 篆者는 尹東暹(1710-1795)이다.¹¹⁶⁾ <「御製碑文」>은 忠烈祠에 ‘御製達川忠烈祠碑’가 세워진 직후에 이를 拓本하고 粧冊하여 1791(정조 15, 건륭 56, 신해)년 12월 모일에 內賜된 內賜本이다. 邊欄은 없으며 半郭은 세로 30.5cm 가로 21.5cm이다. 每半葉의 行數는 5行이고 字數는 11字이며, 책의 크기는 세로 39.5cm 가로 28.5cm이다. 表紙 裏面의 內賜記는 “內賜林忠愍本家忠烈祠碑/ 一件/ 命除謝/ 恩/ 檢校直閣臣徐(手決)”이다. “奎章之寶”의 印文이 있다.

(마) 實紀

■ 「林忠愍公實紀」(28·29)

<「林忠愍公實紀」>는 1791(정조 15, 신해)년 4월 26(경오)일에 奎章閣 閣臣 金憲(1729-1800)가 王命을 받들어 編纂한 將軍의 實紀로, 正祖의 御製序文을 포함하여 5卷 2冊으로 編纂된 뒤 동년(1791)에 芸閣에서 丁酉字로 活印되었다.¹¹⁷⁾ 邊欄은 四周單邊이며, 半郭은 세로 28.0cm 가로 21.8cm이다. 每半葉의 行數는 10行이고 字數는 18字이며 小字는 雙行이다. 魚尾는 上內向2葉花紋魚尾이며, 版心題는 ‘林忠愍公實紀’이다. 책의 크기는 세로 34.5cm 가로 22.2cm이다. 標題紙에는 “辛亥哀輯/ 林忠愍公實紀/ 芸閣活印”이 있고 卷首에는 <御製達川忠

114)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正祖 15年 7月 21(甲午)日條.

“御製忠愍公林慶業碑銘 命刻豎于達川祠.”

115)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正祖 15年 7月 21(甲午)日條.

“御製忠愍公林慶業碑銘 命刻豎于達川祠.”

116) 正祖 御製, 『御製碑文』, 拓本, 忠烈祠所藏本(19).

“御製達川忠烈祠碑 有天下之節 有一國之節 有匹夫之節 雖其限於地而局於分 亦由器量之大小 … 劍湖月古兮 江流吐吞 達巷人去兮 曼聲愆寒 老柏荒祠兮 千秋綱常 雲車霓旌兮 英威颯爽 日拜稽首兮 天子在上 偕彼熊羆兮 左右虎鬚 于何夕降兮 魂翱翔平常所之 眷言周道兮 禾黍離離 舍魯安適兮 父母之國 毋遽廢徹兮 神嗜飲食 爐升一柱兮 豆實百芬 蘊義融結兮 歎息如聞 瞻前忽後兮 風歸肅然 晨星有嘯兮 問光怪乎斗牛之躔/ 資憲大夫禮曹判書兼知經筵事同知成均館事弘文館提學奎章閣檢校直提學臣李秉模奉教謹書/ 輔國崇祿大夫行判敦寧府事兼吏曹判書判義禁府事知經筵春秋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臣尹東暹奉教謹篆/ 上之十五年辛亥八月 日立.”

117)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正祖 15年 4月 26(庚午)日條.

“上興感於忠壯公金德齡·忠愍公林慶業事 命閣臣金憲輯林慶業實紀 徐龍輔輯金德齡遺事 書成 御製弁卷之文 命湖南道臣刊行.”

烈祠碑>, <御製賜祭文>, <綸音>, <林忠愍公實紀目錄> 등이 수록되어 있다. 卷1에는 <劔銘> · <與柳琳書> · <陳灣上便宜及軍務疏> 등의 <遺文>이 수록되어 있다. 卷2에는 장군이 출생한 ‘大明神宗皇帝萬曆二十二年甲午’부터 장군이 48세이던 ‘毅宗皇帝崇禎十四年’까지의 <年譜>가 수록되어 있으며, 卷3에는 장군이 49세이던 ‘毅宗皇帝崇禎十五年’부터 장군의 사후인 ‘崇禎一百六十二年己酉年’까지의 <年譜>가 수록되어 있다. 卷4에는 <賜祭文(肅宗戊寅)>, <賜祭文(英宗丁未)>, <賜祭文(英宗丙子)>, <賜祭文(今上甲辰)>, <賜祭文(今上己酉)> 등의 <賜祭文>과 <傳(宋時烈)>, <傳後敍(李頤命)>, <傳跋(鄭澐)>, <傳(李選)>, <傳(黃景源)> 등의 <傳>이 수록되어 있다. 卷5에는 <行狀>, <謚狀>, <神道碑銘>, <祠版奉安祭文(二)>, <請額疏>, <營建通文>, <上言> 등이 수록되어 있다. 『林忠愍公實紀』가 刊行된 후에는 非公式的으로 達川書院에도 內賜되었던 듯하다. ‘奎章之寶’의 印文이 있다.

■ 『林忠愍公實紀』(30·31)

『林忠愍公實紀』는 1791(정조 15, 신해)년에 왕명으로 5卷 2冊으로 編纂되어 同(1791)년에 芸閣에서 丁酉字로 活印된 바 있다.¹¹⁸⁾ <『林忠愍公實紀』>는 丁酉字本을 底本으로 하여 後代에 地方木活字로 刊行된 版本이나, 누구에 의해 언제 어디에서 刊行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邊欄은 四周單邊이며, 半郭은 세로 25.0cm 가로 18.0cm이다. 每半葉의 行數는 11行이고 字數는 26字이며, 魚尾는 上下內向2葉花紋魚尾이다. 版心題는 ‘林忠愍公實記’이며, 책의 크기는 세로 36.5cm 가로 24.5cm이다. 收錄된 內容은 『林忠愍公實紀』(28·29)와 동일하다.

3.2 所藏 遺物의 文化財的 價値

忠烈祠에 소장된 유물들은 忠愍公 林慶業 장군과 관련된 유물이 그 주류를

11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正祖 15年 4月 26(庚午)日條.

“上興感於忠壯公金德齡·忠愍公林慶業事 命閣臣金憲輯林慶業實紀 徐龍輔輯金德齡遺事 書成 御製弁卷之文 命湖南道臣刊行.”

이루고 있다. 忠愍公 林慶業 장군의 愛國忠節을 감안할 때, 忠烈祠에 소장된 유물은 한결같이 文化財的 價値를 지니고 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忠烈祠에 소장된 遺物 중에는 忠淸北道 有形文化財나 文化財資料로 지정된 文化財는 <御製達川忠烈祠碑>(忠北有形文化財 제272호, 2006·10·04), <秋蓮刀>(忠北有形文化財 제300호, 2009·04·10), <忠愍公林慶業肖像>(忠北文化財資料 제69호, 2009·12·04) 등 3件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외에도 忠烈祠에 소장된 遺物 중에서 文化財的 價値는 물론 研究·保存의 價値가 있는 유물에 대해서는 地方文化財로 지정하여 維持·管理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忠烈祠에 소장된 유물 중에서 地方文化財로 指定될 만한 대상을 類別하고 細部目錄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林慶業夫人完山李氏貞烈碑>(20)
2. <忠州忠烈祠懸板>(33)
3. <『林將軍傳』板木>(34-38)
4. <忠州忠烈祠講堂懸板>(53)
5. <林慶業 關聯 古文書類 一括>

(가) 教旨·教書(22點): <1631年 林慶業 教旨>(39), <1633年 林慶業 教旨>(21), <1634年 林慶業 教旨>(40), <1634年 林慶業 教旨>(41), <1634年 林慶業 教旨>(42), <1634年 林慶業夫人李氏 教旨>(23), <[1635年 林慶業 教旨]>(43), <1636年 林慶業 教旨>(24), <1636年 林慶業 教旨>(22), <1637年 林慶業 教旨>(45), <1637年 林慶業 教旨>(44), <1637年 林慶業 教旨>(46), <1638年 林慶業 教旨>(47), <1638年 林慶業 教旨>(49), <1638年 林慶業 教旨>(05), <1638年 林慶業 教書>(48), <1639年 林慶業 教書>(51), <1639年 林慶業夫人李氏 教旨>(12), <1639年 林慶業 教旨>(27), <1640年 林慶業 教書>(50), <1698年 林慶業 教旨>(10), <1706年 林慶業 教旨>(03),

<1756年 林慶業夫人李氏 教旨>(06), <1756年 林慶業夫人李氏 教旨>(04)

(나) 祭文(2點): <1792年 林慶業 祭文>(25), <1816年 林慶業 祭文>(26)

(다) 地圖(3點): <嶺南沿海形便圖>(13), <釜山鎮圖>(16), <鴨綠江沿邊防衛圖>(18)

(라) 戶口(1點): <1729年 林廷佐 准戶口>(52)

(마) 旌閭文(1點): <貞敬夫人全州李氏忠烈雙成旌閭文書>(08)

(바) 書簡文(1點): <1642年 林慶業 書簡>(09)

6. <林慶業 關聯 典籍類 一括>

(가) 事目(1點): 『啓下事目』(11)

(나) 院誌(2點): 『忠烈祠院誌』(14), 『忠烈祠誌』(15)

(다) 笏記(2點): <『各條笏記』>(07), <『忠烈祠笏記』>(17)

(라) 碑文(1點): <『御製碑文』>(19)

(마) 實紀(4點): <『林忠愍公實紀』>(28·29), <『林忠愍公實紀』>(30·31)

忠烈祠는 忠節의 高장인 忠州市의 대표적인 歷史教育의 現場인 점에서 忠烈祠에 所藏된 이상의 6건의 유물은 忠愍公 林慶業 將軍의 숭고한 愛國忠節의 精神을 窺見할 수 있으므로 地方文化財로 指定·管理하는 것이 合當할 듯하다.

4. 結 論

이상에서 忠州 忠烈祠에 소장된 忠愍公 林慶業(1594-1646) 장군과 관련된 遺物의 性格과 文化財의 價値에 關하여 考究한 바, 이를 要約하여 結論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1) 忠愍公 林慶業 將軍은 1594(선조 27)년 11월 2(병자)일에 忠州의 達川 楓洞에서 출생한 철저한 親明背淸의 名將으로 1646(인조 24)년에 親鞫을 받던

중 향년 53세로卒去하였다.

(2) 忠烈祠는 조선시대 仁祖朝에 忠義로 國家를 위해 獻身한 忠愍公 林慶業 將軍을 祭享하는 祠宇로 1697(숙종 23)년에 창건되고 1727(영조 3)년에 賜額되었으며, 현재의 忠烈祠는 1978년에 重建하면서 紀念館까지 건립된 형태이다.

(3) 忠烈祠에 所藏된 52종 54점의 遺物은 忠愍公 林慶業 將軍과 直接·間接的으로 관련된 遺物이며 鐵物類 1종 1점, 石物類 3종 3점, 木物類 7종 7점, 紙物類 41종 43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 忠烈祠에 소장된 유물 중 忠淸北道 有形文化財나 文化財資料로 지정된 文化財는 <御製達川忠烈祠碑>(忠北有形文化財 제272호, 2006·10·04), <秋蓮刀>(忠北有形文化財 제300호, 2009·04·10), <忠愍公林慶業肖像>(忠北文化財資料 제69호, 2009·12·04) 등 3件에 지나지 않는다.

(5) 忠烈祠는 忠節의 고장인 忠州市의 대표적인 歷史教育의 現場인 점에서 忠烈祠에 所藏된 <林慶業夫人完山李氏貞烈碑>, <忠州忠烈祠懸板>, <『林將軍傳』板木>, <忠州忠烈祠講堂懸板>, <林慶業 關聯 古文書類 一括>, <林慶業 關聯 典籍類 一括> 등 6件의 遺物은 忠愍公 林慶業 將軍의 숭고한 愛國忠節의 精神을 窺見할 수 있으므로 地方文化財로 指定·管理하는 것이 合當할 듯하다.

<참고문헌>

金憲 輯. 『林忠愍公實紀』. 金屬活字本. [漢城]: [芸閣], 正祖 15(1791). 忠烈祠所藏本(28-29).

文化財廳 編. 『古書·古文書 調査便覽』. 大田: 文化財廳, 2009.

林輔榮 考準, 李承浩 書寫. 『忠烈祠院誌』. [忠州]: [李承浩], [筆寫年不明]. 忠烈祠所藏本(14).

正祖 御製, 李秉模 書, 尹東暹 篆. 『御製碑文』. 拓本. [忠州]: [拓本者不明], [拓本年不明]. 忠烈祠所藏本(19).

正祖 編, 筆寫者 不明, 貞敬夫人全州李氏忠烈雙成旌閭文書. [忠州]: [筆寫者不明], [筆寫年不明]. 忠烈祠所藏本(08).

正祖 撰. 『弘齋全書』. 影印本. 서울: 太學社, 1978. 卷33. 教4. ‘宣顯忠紀忠二祠額旌忠烈雙成閭教’條.

春秋館 編. 『仁祖實錄』·『肅宗實錄』·『英祖實錄』·『正祖實錄』. 影印本. 서울: 探求堂, 1986.

忠州市誌編纂委員會 編. 『忠州市誌』. 忠州: 忠州市, 2001.

忠清大學博物館·忠州市 編. 『忠州 忠烈祠 林慶業 將軍 遺品 學術調查 報告書』. 學術研究叢書 37. 清州, 忠清大學博物館, 2010.

